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국지리지 소장

이번 대선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들 한다. 특히 당선 예측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거 같으면 30일 전 당선 후보가 대부분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선이 2주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체로 선거는 정치 세력 간 구도로 고정표를 모으고, 후보가 부동표를 더해 득표를 완성한다. 그리고 전체 득표를 100%로 본다면, 정치 세력 간 구도로 득표하는 것이 약 70%, 후보의 득표가 약 30% 정도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구도를 만드는 국민들의 정치 성향 즉 보수·중도·진보가 약 3분의 비율로 황금률이라 할 수 있는 균형이 유지되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종교칼럼

단한 표 차이



최현열 광주 순교회 담임목사

초등학교 시절 반장 선거 후보로 나가게 된 적이 있었다. 나는 반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짝꿍이 나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질판에 이름이 올랐다. 그렇게 자의 반 타의 반 후보가 되어 질판에 이름이 적힌 친구가 네다섯 명 정도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후보들에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정전 발표를 하라고 하였다. 어떤 친구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자기 소개와 소견 발표를 잘 하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기고

나를 키운 고향, 내가 키울 고향



고성신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지난해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 사랑 기부제')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선 막판 변수, 단일화·역단일화·소단일화

판으로 갈수록 상호 수렴이 되어 변별력이 없어진다. 국정 운영에서도 모두가 통합과 민주정치를 이야기하기에 역시 변별력이 없다. 결국 남는 것이 도덕성 검증이지만 현재 선두 두 후보를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관련 문제들이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다.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후보 검증이 막판까지 정책이나 국정 비전보다는 도덕성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고, 그것조차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란스럽다.

간 단일화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와 윤석열 간 단일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반문(반 문재인) 정권 교체 에너지에 의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윤석열과 안철수 간의 단일화다. 그러나 일단 두 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안철수와 이재명 간 단일화 이야기도 나온다. 역(逆)단일화다. 역단일화가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 소위 친문 후보가 아닌 비문후보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社說

호남 공약 총공세 나선 여야 공약으로 말하라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호남 표심 공략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양당이 호남 공약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불을 지핀 곳은 국민의힘이다.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가 연일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호남을 찾아 민주당의 호남 확대를 부각시켰다. 또 한 보수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하의도 DJ 생가를 찾아 민주당보다 자신이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광주 북합소핑을 유치 논란을 키운 이준석 대표도 어제 다시 광주를 찾아 총장로 유세를 통해 2030 마을 잡기에 나섰다.

무등산 시민 품에 온전히 돌려줄 날 언제인가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와 장봉채 등이 있는 방송통신 시설을 서둘러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이 잇그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을 맞아 개최한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생태 원상 복원을 강조했다. 생태 복원의 필수조건은 군부대와 방송통신 시설 이전이다. 실제로 군부대 주둔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시민의 탐방이 제한되고 있지만 군 차량 통행으로 인한 토양 유실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물론 이들 시설 이전이 이뤄져도 완전한 생태계 복원에는 장구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공공플랫폼 '광주로' 윤희철 이사는 "생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중봉과 누에봉의 식생 회복에 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군부대가 이전하더라도 생태계 회복에는 100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는 가운데 특히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거리 유세로 이재명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남 맞춤형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복합소핑물 유치와 흑산공항 건설에 이어 KTX와 SRT 유치 같은 후속 공약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 거점공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당이 내놓고 있는 공약의 진정성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의 복합소핑물 공약은 민주당의 호남 확대를 부각시켜 갈라치기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고, 민주당의 무안공항 공약도 대선 선거 기간 중에 급조된 느낌이 강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표를 얻으려면 먼저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말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약으로 지역민들에게 진심을 보이는 것이 먼저다.

추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부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복원 원칙과 목표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생태 보전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등산 군부대와 방송 통신시설 이전은 광주 시민의 숙원 사업이다. 광주시, 국방부, 환경부 등은 지난 2015년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시 협약 실현의 걸림돌이 됐던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군부대 등 시설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광주의 어머니 같은 무등산을 온전하게 시민들의 품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강의 콤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 선수 중 역대 어시스트 1위는 162개를 기록한 라이언 긱스다. 2위는 세스크 파브레가스이며, 웨인 루나는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맨유 팀에서 박지성과 함께 뛰어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 이름들 뒤로는 프랭크 램퍼드와 데니스 베르캄프가 있다. 새드 스트라이커의 대명사로 불리는 베르캄프는 아스날과 네덜란드 대표 팀에서 수많은 골을 넣었지만 정작 그의 진가는 어시스트에서 발휘된다. 그는 창의적인 패스로 전혀 무의미할 것 같은 공간조차도 골문에 바꾸어 놓는다는 찬사를 받았다. '축구는 머리로는 게임'이라는 말을 그대로 필드에서 실현해 낸 선수가 바로 베르캄프다. 요즘 토트넘 소속 손흥민의 플레이에서는 '베르캄프의 향기'가 난다. 지난 20일 맨시티와의 경기도 그랬다. 두 개의 패스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하나는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찬스에서 골 욕망을 내지 않고 동료에게 어시스트하는 여유를 보여 준 것이다. 또 하나는 발군의 감각으로 케인에게 찢러 주는 패스였다. 이 한

기억에 남는 선거는 원우회 회장 선거였다. 우리 과에서 먼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그가 바로 나왔다. 그런데 다른 학우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여 처음부터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한 학우가 있었고 경선에서 떨어진 학우도 결국 불복하여 후보 등록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세 명의 후보가 나서게 되었고 나는 1차 투표에서 적은 표 차이로 2위를 하여 낙선하게 되었다. 그런데 학우회 회칙에 의하여 3위를 한 학우를 제외하고 1·2위를 한 후보를 놓고 재투표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역전을 하여 마침내 원우회 회장에 당선이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피식하고 웃어 남길 추억거리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어떤 시의원 후보는 한 표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4년 뒤 치러진 선거에서는 한 표 차이로 당선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는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가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법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적용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금번 대통령 선거에도 나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유권자는 알았으면 한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선거의 제도가 없었다. 하나

를 키운 고향, 내가 키울 고향. 뜻함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이나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남다른 것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나고 자란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에 게 단순히 '애향심'에 기대어 기부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향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부여와 기부와 필요성, 기부를 유도할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답례품인 지역 농특산물을 잘 선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관할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 특산물, 지역 상품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이루어진다면 농가의 새로운 판로가 확보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시작이 곧바로 지방 소멸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보다 쉽고 빠르게 고향에 전달될 수 있고, 기부자는 발전하는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제도 도입까지의 많은 우려구절이 있었던 만큼 나를 키운 고향과 내가 키울 고향을 상상하며, 충분한 준비를 통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취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담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합니다